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뉴욕거주 한인노인과 흑인노인  
간의 비교연구

손 신 (Son, Shin)\*

신 효 진 (Shin, Hyo-jin)\*\*

(E-mail : shinsonny@gmail.com)

논문접수일 : 2011년 3월 31일

논문심사일 : 2011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17일

- 
- \* 학위취득대학 : 뉴욕컬럼비아대학교  
현직: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임강사  
\*\* 학위취득대학: 뉴욕컬럼비아대학교  
현직: 경일대학교 조교수

##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령자들이 은퇴 후 노동활동에 다시 참여할 경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미국 뉴욕의 장노년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5세 이상의 한인 및 흑인 노령자 집단과 노동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한인 및 흑인 노령자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임상적,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통하여 모집된 총 290명의 55세 이상 노령자들 (한인 132명, 흑인은 15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집단면접 형태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가계총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총 가계수입에 자신의 수입이 포함되지 않을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의 목적 변수들과 일의 중요성 변수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수입에 기여하지 않을수록, 일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수록 프로그램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혹은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

[ 주제어 ]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노인고용,  
생산적 고령화 정책, 일의 의미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고령화”라는 말은 우리시대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현상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에 분명하다(보건복지부 2010). 또한 고령화라고 하는 용어는 일정부문에 있어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과학적 개념을 넘어선 일상용어로까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양영자 2006). 미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 하였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현재 3천9백만 명에서 2050년 8천8백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Vasoli 2008). 또한, 2000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의 13%를 차지했던 55세 이상의 노년층 노동인구가 2015년 3천 2백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5.5%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9).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8.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며, 현재의 추세라면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 (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초과함으로써 초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 된다(권중돈 2010, 28).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적 고령화 현상의 가장 큰 시사점은 그 고령화 속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미각국의 고령화는 장기적인 맥락에서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소득보장, 의료보험, 주택정책 등을 통한 노년기 빈곤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적 대비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오자와와 럼(Ozawa and Rum 2005, 41)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21

세기 복지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조기은퇴를 권장하는 정책에서 노년층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유도의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은퇴연령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의 질과 기준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지속적 참여를 선호하고 있으며 (Hyde and Ferrie et. al. 2004), 노년기 심리적, 사회적 상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은퇴 후 노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Owen and Flynn 2004).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 후 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상반된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and Prescher et. al. 2002, 125-137). 일부 학자들은 은퇴 후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론 은퇴 후 삶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and Felderman 2000). 이러한 결과와 상반되는 주장으로 일부 학자들은 현대의 노동시장 체계가 노령층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 은퇴자의 현실은 좌절적일 수밖에 없고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노령자들의 전반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Phillipson 2004).

은퇴를 눈앞에 둔, 혹은 은퇴연령이 지난 노령자들이 일을 지속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원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형태의 은퇴 후 노후를 원하는가? 노년층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유도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든 정책결정 및 고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 중 노령자들이 은퇴 후 일을 지속할 경우 그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뉴욕에 거주하면서 55세 이상 장노년층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및 흑인 노령자 집단과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한인 및 흑인 은퇴 노령자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집단의 개별  
적 욕구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 프  
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임상적, 정책적 제안과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는 서구 선진국은 물론 한국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  
상하고 있는 생산적 고령화 정책의 보완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미국거주 한인노인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행동양식을 알아보는 작업은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이 요구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  
미 있는 선행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 1. 노년과 일의 의미

은퇴를 눈앞에 둔, 혹은 은퇴한 노인들이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필  
요에 의해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실제  
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지금까지 노인과 일에 대한 연구들의 주제는 대부분 노동시장으로부  
터의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의 삶의 변화 및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Ekerdt and Kosloski et. al. 2000, 3-22).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들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Bass 1995). 구  
체적으로 은퇴 후에도 일과 관련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것  
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예방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Kim and Feldman 2000), 노인이 된다는 사실

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늦추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방어기제로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다(Ruth and Oberg 1996). 또한, 일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 하거나 (life story),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life scenario) 은퇴노인의 경우 은퇴 후 삶의 적응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uth and Oberg 1996).

고령 근로자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연구조사들이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가 1980년대와 90년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조기은퇴 선호현상 (Scales and Scase 2000) 이 사라지고, 은퇴 후 노동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Nuttman-Schwartz 2007, 129-147).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단순히 노인들이 은퇴 후 가중되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로 부터 (Phillipson 2004), 프로이드적 해석을 기반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 2.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급여의 지급 혹은 기회의 제공의 측면에서 직접소득보장제도와 간접소득보장제도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소득보장정책은 세금감면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복지정책, 경로우대제 등의 할인정책,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인 취업증진정책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취업증진정책은 고용보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보장을 위한 체계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시행중인 고용촉진사업과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의 노인취업지원센터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김형수·모선희 외, 2009, 135-154).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직업훈련적 측면보다는 취업지원에도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들이 실

제적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경우도 근무시간, 사업 참여기간, 보수수준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한시적이고, 비연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권중돈 2010, 380-384). 무엇보다 현재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불연속적·단절적 속성의 공익형 사업과 단순노동 중심의 복지형사업이 전체 일자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의 일자리 역시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현장실습형 노사공동추진방식의 취업지원보다는 소규모 창업 및 공동사업장 운영 위주의 단절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미국의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공적 기관이나 단체, 사적 회사 등을 잠재적 취업대상으로 선정 후, 이들을 실습기관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 참여노인들에게 주 20시간, 시간 당 \$7.25의 임금을 국고로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다. 궁극적으로 실습지에서의 인턴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주도의 노사협력방식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미국 노인직업훈련 서비스의 보편적, 일반적 방식이다.

2010년 현재 17만 6,000여개의 노인대상 일자리를 통해 국비 1,286억 원의 예산만을 투입(권중돈 2010, 382)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노사공동추진방식의 공적운영의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노인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존재로써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 사회통합과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되어야함을 (장인협·최성재, 2006) 고려한다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노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인 직업훈련 서비스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3.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의 참여요인

##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임금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연금혜택 등의 후생복지 관련 부가급부를 포함한 포괄적인 금전적 보상이 해당된다.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 있어서 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은퇴 후 가중되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Fernandez and Mutran et. al. 1998, 71-79).

미국은퇴자협회 (AARP 1998)에서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을 하겠다고 밝힌 응답자의 약 1/3만이 경제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관심사와 삶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과반수의 응답자들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2009)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은퇴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85.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가장 중요한 일의 동기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Son 2006).

## 2) 사회적 요인

경제적 보상의 수단으로서 일의 의미를 단순화 시키는 것은 앞부분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많은 위험이 따른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안으로 개인을 묶어주는 안



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케 하고, 유대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Bosse and Aldwin et. al. 1987).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전환기적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im and Felderman 2000). 그중 한 명인 빈스톡(Binstock 1998, 254-259)은 일부 은퇴 고령근로자들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환기적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고령근로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은퇴 고령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즐기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다시 일을 시작 한다는 것이다. 미국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파트타임형식의 근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노인들은 직장동료들과의 의미 있는 친교의 기회나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 등을 얻기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생각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직업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Hooyman and Kiyak 1996, 380). 과거의 전통적 농경사회는 토지를 포함한 물질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 당시 농토나 토지는 대부분 노인들이 소유하던 사회였고, 그로인해 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다(Son 2006). 하지만 현대화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은퇴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은 역할과 지위의 상실을 의미하게 된다(Palmore and Manton 1974, 205-210).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부터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참여는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는 보상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 심리적 (정서적) 요인

노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그 자체로서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제공

하는 근원이 되며, 일에 그들의 열정을 쏟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Taylor 2009). 많은 고령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발견되는 내면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을 통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terns and Gray 1999). 이들에게 있어서 일은 보상적 경험으로, 끊임없는 도전으로, 지속적 배움의 과정으로 그 자체가 의미가 되고, 기쁨으로 작용한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젊은 시절 경제적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일과 직업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의미로 작용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 철도청에서 100세에 은퇴할 때까지 76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결근만을 했던 아서 윈스턴 (Arthur Winston)이 은퇴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 (Wikipedia Encyclopedia 2010)은 일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매 10년마다 시행되는 미국인구조사에 따르면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2010) 한인 및 흑인 노인은 뉴욕시 5개 보로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지만, 한인의 경우 80% 이상이 퀸즈 보로 (Queens Borough), 그것도 플러싱 (Flushing)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으며, 흑인계 미국노인의 경우 퀸즈 (Queens)의 자마йка (Jamaica)지역, 맨하탄 (Manhattan)의 할렘 (Harlem)지역, 브루클린 (Brooklyn)의 플렛부시 (Flatbush)지역 등 뉴욕 전역의 흑인 집단거

주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뉴욕시에 거주하면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55세 이상 한인과 흑인 노인,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5세 이상의 한인 및 흑인 노인의 네 집단의 표본추출을 위해 본 연구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인의 경우 퀸즈지역에 위치한 한인노인대상 뉴욕 주 유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뉴욕한인봉사센터의 장년직업훈련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의 직업훈련 참여자 59명과 경로회관 프로그램 참여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흑인노인의 경우 퀸즈 자마이카 지역과 브루클린 플렛부시 지역의 노인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81명, 그리고 같은 지역의 경로회관 프로그램 참여자 77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조사는 290명의 5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전체 연구대상 중 한인은 132명 흑인은 158명이며, 연구자를 포함하여 4명의 전문조사요원이 총 6회에 걸쳐 한인 및 흑인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경로회관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퀸즈 및 브루클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협조한 사회복지기관은 뉴욕한인봉사센터 장년직업훈련프로그램,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로나경로회관, 자마이카 노인서비스프로그램 (Jamaica Services Program for Older Adults, Inc.)의 장년직업훈련프로그램과 경로회관프로그램, 브루클린 가톨릭자선경로회관 (Catholic Charity Senior Center)의 장년직업훈련 및 경로회관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뉴욕시 노인국과 연방 노동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서비스들이다. 먼저 직업훈련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3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정기 (월 혹은 분기별) 훈련생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을 순차

별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읽어준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입하도록 하는 집단면접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개인적인 사유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설문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면접 이후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일을 하지 않는 노인집단의 경우 경로회관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같은 방식의 집단면접의 형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일의 의미에 대한 국제협력연구단" (MOW International Research Team 1987)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수정한 "한인 및 흑인노인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 (Son 2006)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 중 응답한 문항수가 너무 적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290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실제 통계분석에서는 어느 한 변수라도 결측치가 있을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는 리스트와이즈 제외분석(listwise deletion method)이 사용되었다.

### 3. 측정도구 및 변수의 분포

본 연구의 목적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일의 동기로 작용하는 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일을 통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사용된 변수는 성별, 혼인유무, 연령, 수입정도, 그리고 교육수준이며, 일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모두 네 가지로써 일의 목적에 대한 세 가지 변수 즉,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지위 및 사회적 관계), 심리적 요인의 변수들과 마지막으로 일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Sociodemographic Variables)

전체 응답자, 한인 응답자, 그리고 흑인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인 분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서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168명, 57.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인의 경우 남성의 참여율 (42명, 59.9%)이 높은 것으로, 흑인의 경우는 여성의 참여율 (62명, 57.9%)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유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한인 (75명, 56.8%)이 흑인 (57명, 36.1%)에 비해서 기혼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사별, 별거 등을 포함한 미혼자 비율 (54.5%)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인과 흑인을 직업훈련 참여여부로 나누어서 보면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한인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 (57.3%)이 높은 반면, 흑인의 경우 미혼자의 비율 (56.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평균연령이 68세로서 미국 사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만기은퇴연령 (65세)을 3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66.4세)에 비해서 흑인의 연령 (69.4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집단을 나누어서 비교하면 한인과 흑인 모두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연령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 55세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은퇴연령이 지난 후에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기은퇴연령인 62세 미만 응답자는 36명 (12.4%)이며, 65세 미만의 경우 83명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만기은퇴연령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수입이 가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는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의 목적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수입 창출의 방편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한인의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과반수

(62.2%)가 자신의 수입이 가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비참여자의 경우 다수 (83%)가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후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다수 (92.8%)가 자신의 수입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수입은 연간수입으로 계산되었으며 학력과 마찬가지로 등간척도 (1점: \$5,000 이하, 2점: \$5,001- \$10,000, 3점: \$10,001-\$15,001, 4점: \$15,001-\$20,000 . . . . 13점: \$60,001 이상)로 측정되었다. 평균 연수입은 네 집단 중에서 한인 직업훈련 참여집단 (4.2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후인 직업훈련 참여집단의 연 수입 (2.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1점 (무학)에서 12점 (박사학위)까지 등간척도로 측정되었다. 한인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 (6.2점: 직업학교와 대학중퇴 사이)의 평균학력이 비참여자 (4점: 고등학교 중퇴)보다 높게 나왔으며, 후인의 경우 5점 (고등학교 졸업) 전후로 학력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한인			후인			전체
	참여	비 참여	전체	참여	비 참여	전체	
성별							
여성	17(27.9)	44(72.1)	61(46.2)	62(57.9)	45(42.1)	107(67.7)	168 (57.9)
남성	42(59.2)	29(40.8)	71(53.8)	19(37.3)	32(62.7)	51(32.3)	122 (42.1)
혼인							
미혼	16(28.1)	41(71.9)	57(43.2)	57(56.4)	44(43.6)	101(63.9)	158 (54.5)
기혼	43(57.3)	32(42.7)	75(56.8)	24(42.1)	33(57.9)	57(36.1)	132 (45.5)
평균연령	65.5	67.1	66.4	67.4	71.6	69.4	68.0
기여여부							
예	8(17.0)	39(83.0)	47(36.4)	1(9.1)	10(90.9)	11 (7.2)	58 (20.6)
아니오	51(62.2)	31(37.8)	82(63.6)	80(56.3)	62(43.7)	142(92.8)	224 (79.4)
연수입	4.0	3.4	3.7	2.5	3.9	3.2	3.4
교육수준	6.2	4.0	4.9	5.1	4.9	5.1	5.0

## 2) 일의 목적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의 의미에 대한 국제협력연구단" (MOW International Research Team 1987)에 의해 개발된 설문내용 가운데 일의 목적에 대한 문항 (귀하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에게 일을 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문항을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성에 따라 1점에서 6점까지 그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일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각 답변들은 경제적 요인 (일은 나에게 필요한 수입을 가져다준다), 사회적 관계 요인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적 지위 요인 (일은 나에게 지위와 특권을 가져다준다), 심리적 요인 (일은 그 자체가 흥미롭고 나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 2는 일의 목적에 대한 변수들의 평균점수를 인종별 노동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4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표이다. 즉, 한인과 흑인의 2개 하위집단을 다시 노동집단과 비 노동집단으로 나누어서 일의 목적영역에 있어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일의 목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평균점수)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흑인 노동참여집단	5.03	2.79	3.77	2.87
흑인 비 노동집단	4.03	3.33	3.72	2.60
한인 노동참여집단	4.91	2.25	3.48	3.75
한인 비노동집단	4.66	2.44	3.14	3.72
전체평균점수	4.70	2.72	3.54	3.22

전체적 분포를 살펴보면 일을 하는 목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목적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어서 심리적 만족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요인은 그 중요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3) 일의 중요성 변수

노인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일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의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 변수 역시 "일의 의미에 대한 국제협력연구단"(MOW International Research Team, 1987)에 의해 개발된 설문내용 가운데 일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할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의 의미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설문은 일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절대적 중요성과 상대적 중요성으로 구분하여 절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변수 (work involvement)의 경우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1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의 서열적 속성을 지닌 등간변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설문이 개인적 해석의 주관성에 따라 응답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서열식 질문방식을 활용한 변수를 채택하였다. 이 변수 (work salience)는 6개의 삶의 영역 (가족, 지역사회, 여가, 일, 종교, 친구관계)을 중요성의 순으로 순위를 매기도록 함으로서 일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표 3> 일의 중요성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평균점수)

	한인		흑인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평균점수	3.84	2.88	4.56	2.66



위의 표 3에서와 같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년층이 비참여 노년층보다 일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흑인 노동계층, 한인 노동계층, 한인 비노동계층, 흑인 비노동계층 순으로 상대적 중요성의 점수가 분포되었다.

#### 4. 분석방법

노령자들이 은퇴 후 일을 지속할 경우 그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변수일 경우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대신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된 이유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판별분석에 비해 그 기본가정이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Hosmer and Lemeshow 1989). 즉, 다변수 정규분포 (multivariate normality)와 집단 사이의 동변량 (equal variance-covariance)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등 보다 유연한 통계적 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 요인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가를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는 직업훈련 참여여부로서 "예/ 아니오"의 양자택일인 명목변수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연구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택 되었다.

### IV. 연구결과

위의 분석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한인, 흑인의 세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다음 이차적으로 일의 목적 변수들과 일의 중요성 변수를 포함하여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는 일반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는 일반 회귀분석에서 기울기와 같이 직접적인 해석이 불가능한데 이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회귀계수는 일어날 확률의 로그값과 독립변수 사이의 직선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Hosmer and Lemeshow 1989).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가지는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사용하며, 이는 기울기의 값이 정(+)의 값인 경우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그럴 가능성(odds)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부(-)의 값인 경우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가능성이 감소함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확률 (Probability)로 해석되어지며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분석결과표에 나타난 회귀계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을 의미한다<sup>1)</sup>.

- 
- 1) 예를 들어, 표 5에 표시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독립변수 중 연령을 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1년 증가할 때 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할 확률의 로그값과 -.10의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이 값을 일반 회귀분석에서 기울기의 값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 기울기 값을 로그값으로 환산한 값인 오드(odds)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 값을 일반회귀분석에서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값은 언제나 정의 값을 가진다 (아래의 표 5에서는 exp로 표현되어 있음).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연령을 예로 들면, 응답자의 연령이 1년 증가할 때 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은 .91배 변화하는데 기울기의 방향성을 참고하여 연령이 늘어날수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은 .91배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로지스틱회귀분석: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의 영향

	전체			한인			흑인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연령	-.10***	14.12	0.91	.05	0.69	0.95	-.11**	8.76	0.90
성별	-.12	0.16	0.88	-1.08*	3.97	0.34	.75	2.93	2.11
결혼	.07	0.06	1.08	-.53	1.20	0.59	.11	0.07	1.12
교육	.67**	6.76	1.96	.79	3.48	2.20	-.43	0.13	0.65
영어구사	.36*	4.99	1.43	1.03*	5.67	2.79	-.42	0.46	0.66
가계총수입	-.18**	9.60	0.84	.01	0.01	1.00	-.44***	16.58	0.65
수입기여	-1.69***	14.99	0.18	-1.85***	12.21	0.16	-2.92*	6.63	0.05
상호작용1	-.06	3.51	0.94	-.13	3.28	0.88	.07	0.31	1.07
Hosmer	15.17			6.69			.60		
X <sup>2</sup>	73.70***			59.89***			51.31***		
R <sup>2</sup>	.31***			.45***			.38***		
전체적합도	72.60			78.90			71.90		

각각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수가 가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방정식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그 설명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 Lemeshow = 15.17, P>.05). 다시 말해서 전체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예측한 예측값과 실제 관측한 관측값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sup>2)</sup> 또한 전체 방정식의 설명력 정도를 보면 (Nagelkerke의 R<sup>2</sup>), 그 값이 .31로서 종속변수의 로그값의 31%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 방정식의 카이제곱값 역

2)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호머스와 르메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하는 카이제곱값은 교차분석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용과는 반대가 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이다. 이런 점에서 구조방정식에서 카이제곱값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73.70<sup>\*\*\*</sup>)으로 나타나 상수를 제외한 적어도 한 변수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적합도 (Overall fit)를 보면 전체 방정식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여부가 예측되었으며 이중 72.6이 올바르게 예측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인집단이나 흑인집단의 경우도 전체응답자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한인의 경우 R<sup>2</sup>의 값 (.45<sup>\*\*\*</sup>)이 전체응답자나 흑인집단 (.38<sup>\*\*\*</sup>)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가계총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총 가계수입에 자신의 수입이 포함되지 않을수록 직업훈련이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가계총수입 (Wald= 14.99)과 연령 (Wald= 14.12)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드 (odds)의 값을 보면 교육에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다. 즉 교육정도가 1단계 증가할 때 마다 약 2배 가까이 (1.96) 그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의 경우 남성일수록, 총 가계수입에 자신의 수입이 포함되지 않을수록,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총수입이 낮을수록, 총 가계수입에 자신의 수입이 포함되지 않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일의 목적변수와 일의 중요성 변수를 포함시킨 결과

아래의 표 5에서 전체 방정식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그 설명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 Lemeshow = 1.82,  $P > .05$ ). 또한 전체 방정식의 설명력 정도를 보면 (Nagelkerke의  $R^2$ ), 그 값이 .47로서 종속변수의 로그값의 47%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 방정식의 카이제곱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103.74<sup>\*\*\*</sup>)으로 나타나 상수를 제외한 적어도 한 변수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적합도 (Overall fit)를 보면 79.3이 올바르게 예측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인집단이나 흑인집단의 경우도 전체응답자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흑인의 경우  $R^2$ 의 값 (.59<sup>\*\*\*</sup>)이 전체응답자 (.47<sup>\*\*\*</sup>)나 한인집단 (.52<sup>\*\*\*</sup>)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일의 목적변수, 일의 중요성변수의 영향

	전체			한인			흑인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연령	-.11 <sup>***</sup>	12.10	0.89	-.10	2.45	0.90	-.12 <sup>*</sup>	6.04	0.89
성별	-.09	0.06	0.91	-1.18	3.15	0.31	.59	1.08	1.80
결혼	.01	0	0.99	-.65	1.29	0.52	.46	0.59	1.58
교육	.71 <sup>*</sup>	4.66	2.03	.71	1.77	2.03	-.41	0.08	0.67
영어구사	.58 <sup>**</sup>	7.47	1.78	.90	2.73	2.46	.01	0	1.01
가계총수입	-.10	2.22	0.90	.03	0.08	1.03	-.37 <sup>†</sup>	6.32	0.69
수입기여	-1.55 <sup>*</sup>	6.07	0.21	-1.85 <sup>*</sup>	6.09	0.16	-3.24 <sup>*</sup>	4.69	0.04
경제적 보상	.09	0.51	0.91	-.30	2.62	0.74	.21	0.89	1.23
사회적 지위	.03	0.06	1.03	.14	0.62	1.15	-.01	0.01	0.99
사회적 관계	.15	0.99	1.17	.13	0.29	1.14	.25	0.92	1.28

심리적 만족	.16	1.54	1.18	.17	0.75	1.19	.48 <sup>*</sup>	4.36	1.62
일의 중요성	.40 <sup>*</sup>	5.08	1.49	.28	1.32	1.32	.97 <sup>**</sup>	7.72	2.63
상호작용1	-.07	3.30	0.93	-.12	1.54	0.89	.05	0.09	1.05
상호작용2	.35	0.31	1.41	-.36	0.14	0.70	-.05	0	0.95
Hosmer	1.82			13.67			9.27		
$\chi^2$	103.74 <sup>***</sup>			54.92 <sup>***</sup>			74.08 <sup>**</sup>		
$R^2$	.47 <sup>***</sup>			.52 <sup>***</sup>			.59 <sup>***</sup>		
전체적합도	79.30			84.80			84.60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전체집단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수입에 기여하지 않을수록, 일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수록 프로그램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고되었다. 한인의 경우 단 한 변수인 본인의 수입에 가계 총수입에 기여하지 않을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 총수입이 낮을수록, 수입기여가 아닐수록, 일의 목적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수록, 삶의 다양한 영역 중 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수록 참여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 1.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결정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

첫째, 전체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영어구사여부, 가계총수입, 자신의 수입이 가계 총수입에 기여하느냐의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어구사능력이 있을수록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가계 총수입이 낮을수록 프로그램 참여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자신의 수입에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수록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비교해서 한인 집단만을 따로 분석한 경우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방향성은 같지만 전체 응답자와는 다른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성별이다. 한인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구사능력이 높은 경우에, 그리고 자신이 수입이 가계 총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구사능력이 높은 생계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남성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미국 장노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인 저소득, 유색인종, 여성위주라는 범주와는 상반되는 특성으로 이는 미국거주 한인노년층의 직업참여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Son 2006).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비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의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이지만 미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상대적인 두려움이 적은 어느 정도 영어구사가 가능한 적극적인 성향의 남성들의 참여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민이라는 삶의 전환기적 사건에 의해 직업적, 경제적 지위의 급격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과거에 직업적 성공과 직업생활상의 긍정적 자신감을 경험한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흑인의 경우 역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수입기여” 한 변수인데, 자신의 수입이 가계 전체수입에 보탬에 되

지 않는 응답자 일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록 수입이 높은 집단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결과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저소득층에 속해있지만 이들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반드시 생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들이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노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특성상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이어지는 일의목적변수의 영향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 2.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결정에 대한 일의목적변수와 일의중요성 변수의 영향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만 포함시켰을 때와 비교하여 가계 총수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일의 목적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의 상대적 중요성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수입기여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며, 일의 목적 변수와 일의 상대적 중요성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인 노인의 경우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참여가 경제적인 소득이나 다른 사회문화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여가의 개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로는 첫째, 정부에서 노인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현금혜택인 추가보장금(SSI)의 월 지급액이 개인의 경우 2009년 현재 7백61불로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월 최대 훈련금 액수



인 5백80불 (\$7.25(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 x 20(주 최대 훈련가능시간) x 4주= \$572) 보다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 한인 은퇴노인의 경우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추가보장금을 못 받게 되거나 수령금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한인의 문화적인 전통으로 일반적으로 60세 즉 환갑을 기준으로 한 은퇴를 당연시 여기는 관념이 한인노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60세 이후에 가지는 직업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인노인의 경우 생계를 돕거나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체가 여가선용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흑인의 경우 자신의 수입이 가계 총수입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참여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 자체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길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인과는 차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가계 총수입이 낮을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자신의 수입이 가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참여가능성이 높음) 일 자체가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며, 일에 열정을 쏟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 추론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혹은 고용프로그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임상학적 관점에서 은퇴노인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한 다변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실천가들은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 참여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할 때 면접상담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 (empowerment) 및 자신감 고취, 문제 해결능력의 고양 등

의 전통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자원과의 연결은 물론 개별적 욕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자원의 강화 및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의 노인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아직은 노인들의 선택적, 개별적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및 정책의 관점에서 노인들이 현재 사용 중인 다른 소득보장정책과의 상호연계성이 미비할 때 정책의 기본 목적과는 상치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노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은퇴 장노년층이 생산 활동에 재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목적),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을 높이며 (심리적 목적), 부수적으로 소득보장의 또 다른 방편 (경제적 목적)을 제공함에 있다. 하지만, 한인 노인의 경우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인 추가보장금 혜택상의 불이익과 은퇴에 대한 한국 고유의 전통의 영향에 의해 흑인 노인과는 달리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없는 개인적 능력을 갖춘 (높은 영어구사능력) 남성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자원봉사 활동 (혹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한인노인의 경우 사회보장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인 10년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뉴욕에서 노인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인노인들 가운데 10년의 의무기간 중 부족한 일수가 충족되면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즉각적으로 탈퇴하는 훈련생을 적지 않게 보아온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반증된다. 하지만 흑인 노인들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심리적 이유, 무엇보다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직업훈련에 참

여하도록 하는 중요기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요인에 대한 한인노인과 흑인노인 간의 분명한 차이는 프로그램 및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같은 구조와 내용이라 할지라도 참여하는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반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흑인노인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노인직업훈련프로그램이 한인노인에게는 단지 은퇴 후 삶을 보다 잘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수단되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획일화되고 유형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자의 개별적 독특성과 환경적 특수성, 그리고 인구·사회·지정학적 특성과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의 중요성이다.

둘째, 흑인노인들의 경우 참여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국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정 자체가 실습지에서 동료 및 직원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실제적인 사회기여를 가능케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참여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직업훈련 수료와 더불어 많은 경우 실습지에서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노사협력방식의 직업훈련프로그램 구조는 오히려 흑인노인들의 경제적인 참여요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직업훈련 참여 자체가 실제적인 취업과 연결되는 구조에서 프로그램 참여는 당연히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과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안정적 구조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시혜적·단절적·일시적 속성의 일자리제공 서비스는 생계비가 부족한 노인이 필요한 돈을 벌기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

가 아니라 과거에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가 노령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를 위기가 아닌 사회적 기회로 삼아야하며, 노년기의 생산 활동 참여를 단지 경제적 결핍을 충족하기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안녕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적 고령화 정책을 통한 노인의 사회기여의 극대화, 노인의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전제하에 노인노동력의 사회자원으로의 적극적 전환을 모색하는 구체적 노력들이 노인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노동시장의 노인인구에 대한 유연한 환경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형수·모선희·유성호·윤경아, 2009, 『현대노인복지론』, 서울:학지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보건복지부, 2010, “저출산고령화 특집영상,”  
[http://www.mw.go.kr/front/jb/sjb0702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1&BOARD\\_ID=930&BOARD\\_FLAG=02&CONT\\_SEQ=241656&page=1](http://www.mw.go.kr/front/jb/sjb0702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1&BOARD_ID=930&BOARD_FLAG=02&CONT_SEQ=241656&page=1), 2010/12/01.
- 양영자, 2006, “노인생활실태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노인복지실천의 딜레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6 학술대회.
- 장인협·최성재, 2006,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998, *Baby Boomers Envision Their Retirement: An AARP Segmentation Analysis*, Washington DC.
- \_\_\_\_\_, 1999, *American Business and Older Employees: A Summary and Findings*, Washington, DC.
- Adams, G. A., J. Prescher, T. A. Beehr, and L. Lepisto, 2002, “Applying work-role Attachment Theory to Retirement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54, pp. 125-137.
- Barnes-Farrell, J. L, 2003, “Beyond Health and Wealth: Attitudinal and Other Influences on Retirement Decision-making,” G. A. Adams and T. A. Beehr ed.,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New York: Springer.
- Bass, S. A., 1995, *Older and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Ar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Binstock, R. H., 1998, “Employment and the Elderly,” *Gerontologis*

t Vol. 38, No. 2, pp. 254-259.

- Bosse, R., C. M. Aldwin, M. R. Levenson, and D. J. Ekerdt, 1987,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Vol. 2, No. 4, pp. 383-389.
- Ekerdt, D. J., K. Kosloski, and S. DeViney, 2000, "The Normative Anticipation of Retirement by Older Workers," *Research on Aging*, Vol. 22, pp. 3-22.
- Fernandez, M., E. Mutran, D. Rietzes, and S. Sudha, 1998, "Ethnicity, Gender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Workers," *The Gerontologist*, Vol. 38, pp. 71-79.
- Hooyman, N. R., and H. A. Kiyak, 1996, *Social Gerontology*, MA: A Division of Simon and Schuster, Inc.
- Hosmer, D. W., and S. Lemeshow, 1989, *Applied Logistic Regression*, NY: John Wiley and Sons.
- Hyde, M., J. Ferrie, P. Higgs, G. Mein, and J. Nazroo, 2004, "The Effects of Pre-retirement Factors and Retirement Route on Circumstances in Retirement: Findings from the Whitehall II Study," *Ageing and Society*, vol. 24, pp. 279-296.
- Kim, S., and D. C. Feldman, 2000, "Working in Retirement: The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nd Its Consequences for Quality of Life in Retir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pp. 1195-1210.
- Meaning of Work (MOW) International Research Team, 1987, *The Meaning of Working*, London: Academic Press.
- Nuttman-Shwartz, O., 2007, "Is There Life Without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64, No. 2, pp. 129-147.
- Owen, L., and M. Flynn, 2004, "Changing Work: Mid-to-late Life

- Transitions in Employment," *Ageing International*, Vol. 29, No. 4, pp. 333-350.
- Ozawa, M. N., and T. Y. Rum, 2005, "Men Who Work at Age 70 or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Work*, Vol. 45, No. 4, pp. 41-63.
- Palmore, E., and K. Manton, 1974, "Modernization and Status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Vol. 29, No. 2, pp. 205-210.
- Phillipson, C., 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tirement: Perspectives from Critical Theory and Political Economy." M. Mingler, and C. Estes ed., *Critical Gerontology: Perspectives from Political and Moral Economy*, Amityville, New York: Baywood.
- Phillipson, C., 2004, "Review Article. Older Worker and Retirement: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Research Literature and Policy Implications," *Social Policy and Society*, Vol. 3, pp. 189-195.
- Ruth, J. E., and P. Oberg, 1996, "Ways of Life: Old Age in a Life History Perspective." J. E. Birren, G. M. Kenyon, J. E. Ruth, and S. Schroots ed., *Aging and Biography: Exploration in Adult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Scales, J., and R. Scase, 2000, *Fit and Fifty?: A Report Prepared for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Swindon: Economic Social Research Council.
- Settersten, R., 2003, *Invitation to the Life Course*, Amityville,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
- Shultz, K. S., 2003, "Bridge Employment: Work after Retirement." G. A. Adams, and T. A. Beehr ed.,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New York: Springer.
- Son, S., 2006, "Defining the Meaning of Work for Minority Older Adul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mericans and

- African Americans," Ph. D. Dis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Sterns, H. L., and J. H. Gray, 1999, "Work, Leisure, and Retirement," J. C. Cavanaugh, and S. Krauss ed., *Gerontology: A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P., 2009, "America's Changing Workforce- Recession Turns a Graying Office Grayer," <http://www.pewsocialtrends.org>, 2010/03/25.
- US Census Bureau, 2009, "Work Status of People 65 Years and Older: 2008 American Community Survey," *American Community Survey Reports, September 2009*.
- US Census, 2010,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 Vasoli, B., 2008, "Census Reports Senior Citizen Population to Double by 2050," *The Bulletin: Philadelphia's Family Newspaper*. [http://www.thebulletin.us/site/index.cfm?newsid=20018800&BRD=2737&PAG=461&dept\\_id=576361&rfti=8](http://www.thebulletin.us/site/index.cfm?newsid=20018800&BRD=2737&PAG=461&dept_id=576361&rfti=8), 2009/11/14.
- Viney, L. L., 1993, *Life Stories: Personal Construct Theory with the Elderly*, West Sussex, England: Wiley and Sons.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0, *Arthur Winston*, [http://en.wikipedia.org/wiki/Arthur\\_Winston](http://en.wikipedia.org/wiki/Arthur_Winston). 2010/12/18.



# Defining the Participating Factors of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on, Shi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hin, Hyo-jin  
(Kyung-II University)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cision of older adults over the age of 55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after retirement. In this study, one hundred thirty two older Korean-American adults and one hundred fifty eight African-Americans were recruited and completed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en only socio-demographic factors we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dults on the low end of the age spectrum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y were also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if they were highly educated, had high English-language skills, had low household income, did not contribut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valued the meaning of work in their lives. This trend remained true even when the remaining socio-demographic factors were added into the analysis.

**Keywords :** SCSEP, Post-retirement Work, Employment policy for the Aged, the Meaning of Work.

